주간 증시 브리핑

2025.9.15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KOSPI는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기대(9/11일)과 美 오라클 실적 서프라이즈, 美 금리 인하 기대에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(3,396pt, 주간 +190p, +5.9%). 외국인 투자가들은 AI 모멘텀 재확인 속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 4.0조원 가량 순매수. KOSDAQ도 3주 연속 상승함(847p, 주간 +4.4%)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오라클 실적 발표와 예상에 그친 인플레(8월 CPI +2.9%yoy)에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함(주간 S&P500 +1.6%, 나스닥 +2.0%). 지난주 반락했던 中 증시도 한 주만에 반등함(주간 상해종합 +1.5%, 항셍 +3.8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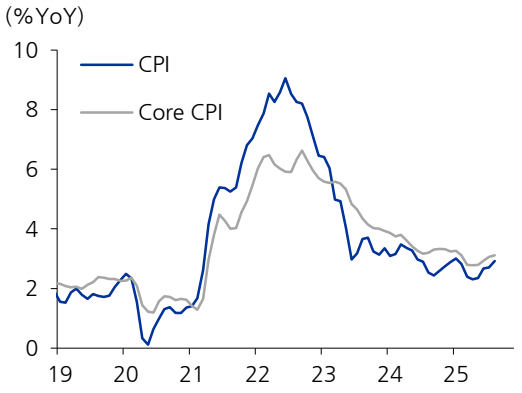
- **[시장전망]** KOSPI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은 11배에 도달함. 1년 반 만에 최고임. 그러나 美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유효함. AI 투자는 내년 경기와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임. KOSPI 3,400pt대에 대한 경계가 크지 않을 전망.

- **[주요일정]**
  ① 中 8월 실물경제지표(9/15일)
  ② 美 8월 소매판매(9/16일)
  ③ 美 FOMC 회의(9/17-18일)
  ④ 日 BOJ 통화정책회의(9/19일)
  ⑤ 한국은행 8월 금통위 의사록
  ⑥ 美 메타 기술 컨퍼런스 2025 (9/17~18일)

구분		9/12	1W	1M
KOSPI	↑	3,396	5.9%	6.4%
S&P500	↑	6,584	1.6%	2.1%
DOW	↑	45,834	1.0%	3.1%
닛케이225	↑	44,768	4.1%	4.8%
상해종합	↑	3,871	1.5%	5.6%
원/달러(원)	↓	1,388	-0.2%	-0.1%
엔/달러(엔)	↓	148	-0.3%	-0.4%
국고채3년(%)	↓	2.43	2.46	2.43
국고채10년(%)	↓	2.81	2.86	2.80
미국채10년(%)	↓	4.07	4.08	4.29
WTI(달러/배럴)	↑	62.7	1.3%	-0.8%
한5-yrCDS(bp)	↓	17.8	-1.2	-4.0

CHART of the week

美 CPI 상승률 추이



1 KOSPI 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(9/11일)

AI 수요와 정책 모멘텀에 우호적 분위기 계속

- 9/11일 KOSPI는 3,314.5pt에 마감해 4년여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(이전 3,302.8pt), 계속 상승세를 이어감.
-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철회 기대가 재차 살아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됨.
- 美 오라클 실적 발표 후 AI 투자 열기가 재확인됨. 반도체 주가가 급등(삼성전자 +8%, SK하이닉스 +20%). 외국인은 두 종목 합쳐 3.3조원 순매수함
- AI 투자 싸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됨. 여기에 美 금리인하까지 겹치면, 하반기와 내년까지 반도체, IT부품, 전력기기 수요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
2 美 8월 CPI +2.9%yoy 상승(9/11일)

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은 대부분 마련

- 美 8월 CPI 및 Core CPI는 각각 +2.9%yoy, +3.1%yoy 상승해 시장예상치에 부합
- 차량을 제외한 Core 상품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둔화됨(+0.2%mom). 7월 +0.5% 급등했던 비주거 Core서비스 인플레이션도 8월 +0.2%로 완화
- 최근 기업들의 가격 인상 의향이 완화됨. 비용 상승은 여전하나, 수요 둔화로 가격 전가가 어렵기 때문. 관세 영향은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.
- 인플레 확산이 강력하지 않음. 반면 美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이어지고 있음. 올해 연준이 2~3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될 전망.

3 美 오라클 실적 서프라이즈(9/10일)

AI의 폭발적인 수요를 재확인

-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선도해왔던 美 오라클은 FY1Q26 실적에서 매출은 +12.2%yoy, EPS는 +5.8%yoy 증가해 시장예상치를 소폭 하회.
- 그러나 클라우드 인프라(OCI) 부문 매출이 +57% 급증함. 특히 실현되지 않는 매출이 +359% 급증한 4,550억 달러를 기록하며, AI의 폭발적인 수요를 재확인함.
-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이날 AI 추론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전망함. 2026년 CapEx 전망치도 350억 달러로, 2025년 250억 달러 대비 대폭 상향함
- 폭발적인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수요 기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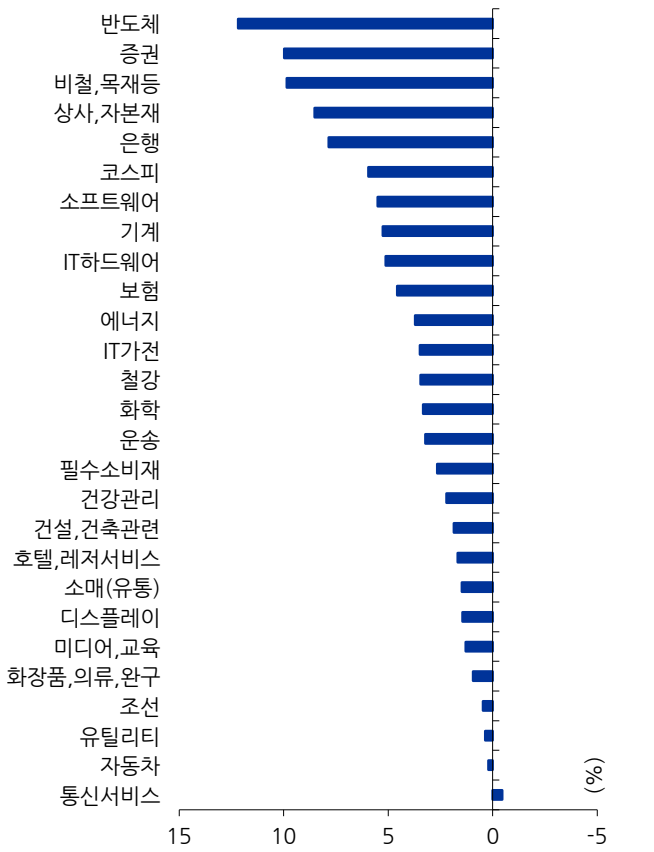
4 韓 채권시장 동향(9/8~12일)

미국 지표 부진과 인하 기대에 연동된 강세

- 국고채 3년물 금리 2.431%(-2.9bp), 10년물 금리 2.813%(-4.2bp) 마감.
- 미국 고용 및 PPI 둔화, 프랑스 정부 붕괴 등 대외 요인에 연동되며 주간 강세 전환.
- 전주 8월 고용 발표 후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연 3회까지 빠르게 반영된 것이 글로벌 금리 하락의 주된 원인.
- 그럼에도 국내 인하 횟수는 부동산 불안으로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에 장기물 강세만 연동되며 주 후반 커브 소폭 플래트닝.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9/12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9/15~9/19)

中 8월 실물경제지표(9/15일) → 나쁘지 않은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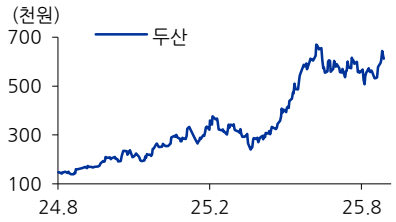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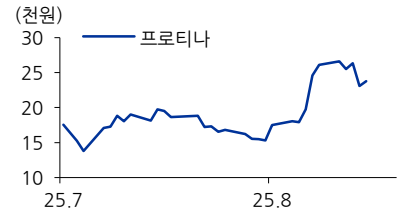
- 中8월 산업생산, 소매판매, 고정자산투자는 각각 +5.7%yoy, +3.9%yoy, +1.5%yoy 증가할 전망
- 지난해 8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세 부문 모두 기존의 성장 속도를 이어가는 무난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
- 미국 관세 부과에도 중국 경기는 크게 나쁘지 않음. 4월 이후 대미 수출은 -25% 감소했지만 EU(+9%), 인도(+12.5%), 아세안(+18%) 등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은 호조를 지속 중. 최근 중국 증시도 가계의 잉여 유동성 유입으로 빠르게 상승
- 이미 상반기 성장률 호조로 연간 5% 성장 가능성이 유력해짐. 10월 예정된 15차 5개년 계획은 전면적인 부양 보다는 Tech 위주의 기술 패권 확보에 주력할 전망

美 9월 FOMC(9/18일) → 내년 말 금리 전망에 주목

- 연준은 9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4.0~4.25%로 25bp 인하할 전망
- 관건은 점도표가 될 전망. 현재 시장은 연내 3회 인하 가능성을 60% 이상 반영 중이나, 점도표에서는 2회 인하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
- 연준의 스탠스는 고용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인하로 돌아섰지만, 현재 실업률(4.3%)은 여전히 6월에 전망한 올해 연말 수준(4.5%)보다 낮음. 인하가 필요해도 매우 급박하게 움직일 이유는 아직 없음
- 내년 인하 폭도 중요함. 6월에는 올해와 내년 각 2회 인하를 예상했으나, 내년 말 금리 전망이 이보다 낮아진다면 증시에 우호적인 심리는 더 강화될 전망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 / 시장 이벤트
9/15 (월)	▪ 中 8월 산업생산 (C: +5.7%yoy, P: +5.7%yoy) ▪ 中 8월 소매판매 (C: +3.9%yoy, P: +3.7%yoy) ▪ 中 8월 고정자산투자 (C: +1.5%yoy, P: +1.6%yoy)	▪ 日 휴장(경로의 날)
9/16 (화)	▪ 美 8월 소매판매 (C: +0.3%mom, P: +0.5%mom) ▪ 美 8월 근원 소매판매 (C: +0.5%mom, P: +0.2%mom)	
9/17 (수)	▪ 美 8월 주택착공건수 (C: 137.5만건, P: 142.8만건) ▪ 美 8월 건축허가 (C: 137.0만건, P: 136.2만건) ▪ 유 8월 소비자물가지수 (P: +2.1%yoy) ▪ 유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(P: +2.3%yoy)	▪ 美 9월 FOMC (~18일) ▪ 美 메타 커넥트 2025 (~18일)
9/18 (목)		▪ BOE 통화정책회의 ▪ [실적발표] 페덱스
9/19 (금)	▪ 日 8월 소비자물가지수 (P: +3.1%yoy) ▪ 日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(P: +3.1%yoy)	▪ BOJ 통화정책회의 ▪ 美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IT/전기전자	두산 (000150)	623,000 (9월 12일)	0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8,132.9 / 19,823.1 / 21,392.9 영업이익 1,003.8 / 1,460.8 / 1,938.6 순이익 302.2 / 672.9 / 1001.7 PER (배) - / 47.5 / 28.7	▪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사이클 속 업스트림 제품인 CCL의 지속적 수요 강세 예상 ▪ 가장 많은 볼륨과 높은 스펙 요구하는 업체는 엔비디아. 두산전자BG는 엔비디아 내 압도적 점유율 보유 ▪ 컴퓨팅 파워/밀도 업그레이드 사이클 속 높은 출하량에 더해 가장 빠른 단가 상승 모멘텀 및 영업이익률 지속할 것. 연말 ~ 내년 초 추가 ASIC 고객 확보 전망
통신/인터넷	대한광통신 (010170)	1,174 (8월 28일)	+40.8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52.7 / 179.4 / 224.5 영업이익 (29.7) / (5.4) / 13.7 순이익 (56.0) / (17.7) / (2.5) PER (배) - / - / -	▪ 미국 통신 시장 재고 조정 마무리 단계 진입. 글로벌 Tier 1 공급사는 한정된 Capa를 AI 데이터 센터 향 초고밀도 케이블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우선적으로 할당 중. 이는 상대적으로 기술 장벽이 낮은 FTTH 광케이블 시장에서 동사에 구조적 기회요인으로 작용 ▪ 통신 부문 수주잔고 2022년 전고점 돌파. 향후 BEAD와 인캡의 본격적 시너지를 고려할 때 추가 실적 모멘텀 가능
바이오/제약	프로티나 (468530)	18,660 (8월 14일)	+27.5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2.3 / 7.0 / 15.0 영업이익 (9.1) / (11.0) / (5.0) 순이익 (5.7) / (9.0) / (3.0) PER (배) - / - / -	▪ 단백질-단백질 상호작용(PPI) 분석 플랫폼 'SPID'를 보유, 기존 기술의 낮은 민감도와 정확도를 개선 ▪ 현재는 플랫폼 활용한 서비스로 수익을 인식하며, 중장기적으로는 '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'으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계획 ▪ 향후 글로벌 빅파마와 신약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면서 기업가치 상승 기대. 2027년 흑자전환 목표
엔터	와이지엔터 (122870)	99,100 (8월 14일)	-0.9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364.9 / 609.4 / 654.0 영업이익 (18.6) / 74.6 / 88.0 순이익 20.0 / 75.4 / 84.3 PER (배) 46.2 / 30.3 / 25.2	▪ 하반기 고연차(블랙핑크) 아티스트 대규모 월드투어 진행됨에 따라 공연 매출과 수익성 높은 MD 중심 성장 기대 ▪ 저연차(베이비몬스터) 아티스트 글로벌 팬덤 확대에 따른 수익화 시기 단축되며 원가구조 개선, 성장 모멘텀 모두 풍부
레저	파라다이스 (034230)	20,500 (8월 14일)	+4.4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,072.1 / 1,174.5 / 1,280.1 영업이익 136.1 / 184.0 / 211.2 순이익 110.7 / 126.9 / 142.9 PER (배) 11.7 / 21.7 / 19.0	▪ 일본 VIP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, 9/29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중국 VIP 성장 기대 ▪ 인천 하얏트 웨스트 타워 인수 시 늘어나는 카지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 확대